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5. 8.(수) 배포	사진	3	자료	0	매수	1
담당부서	용인소방서 화재예방과 (생활안전팀)	과 장	이기봉 (031-8021-0300)				
		팀 장	송해연 (031-8021-0330)				
		담당자	박주경 (031-8021-0334)				

용인소방서,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며 '재난안전 전문가'로 발돋움

- 용인 정광산, 광교산 일대 구조훈련으로 도민 안전에 매진



△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용인소방서 제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락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봄철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추락·조난·실족 등의 산악사고에 대비해 인명구조기술 및 로프 이용 구조 역량을 강화하여 구조 대상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별구조훈련은 119구조대원 41명을 포함하여 구조훈련 참석을 희망하는 화재 진압대원까지 총 50여 명이 정광산과 광교산에서 진행됐다.

훈련 안전관의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악사고 유형을 가정해 상황별 구조법을 훈련했으며, 특히 인근 용인자연휴양림 내 운영 중인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추락할 상황을 가정한 수목 구조 숙달 훈련 및 계곡 도하를 위한 수평 구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패러글라이딩 추락에 따른 수목구조 훈련 ▲등산로별 산악 수색 방법 및 인명구조 훈련 ▲로프 응용 기술을 통한 고립 구조대상자 수평구조 ▲산악구조장비 사용법 숙달 ▲재난 현장 표준작전절차 준수 및 숙지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따뜻한 날씨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 다양한 유형의 산악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악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